

“보조 스님 ‘간화선법’은 위조다”

박건주 박사, 보조사상 100회 특집 발표회서 주장

보조 지눌 스님의 간화선 주장 근거로 꼽히는 대표적인 저서 <간화결의론>의 진위를 부정하는 발표가 나와 화제다. 박건주 박사(전남대 강사)는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100회 특집 월례학술대회에서 “<간화결의론>이 보조 입적 이후 발견됐으며 그 직계제자인 진각 해심의 위작이다”고 주장했다.

‘절요사기’와 ‘간화결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 내용은 1982년 권기중 당시 동국대 교수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박건주 박사는 여기에 △절요사기에서의 위조 △보조비명에서의 위조 문제를 들며 <간화결의론>의 위조 논란을 비롯한 보조 지눌 스님의 간화선 주장 논란을 제정화 했다.

박 박사는 “보조는 6조 혜능 이후 여러 계파 중 하택선회를 가장 높이 평가해 생전 저술에서 하택선회와 그를 계승한 규봉 종밀의 법문을 자주 인용·의거했다”면서 “그런데 <절요사기> 맨 앞에 혜능의 적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기술한 것은 상식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이어 “보조가 입적한 다음해인 1211년 작성된 보조비명을 주도한 것은

행장을 담당한 진각해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보조비명에는 보조 스님이 ‘성적등지문’, ‘월둔신해문’, ‘경절문’의 삼종문으로 생전 법을 펼쳤다고 전하고 있다. 이중 성적등지문은 정혜쌍수, 원둔신해문은 화엄경론, 경절문은 간화선법으로 요약된다.

박 박사는 “성적등지문과 원둔신해문은 앞선 여러 저술에서 설해져 있다. 하지만 경절문은 입적 수개월 전 저술한 <절요사기> 4군데와 비명, 유적으로 입적 5년 뒤 간행된 <간화결의론>에만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간화결의론을 보조의 저술이라 가정하더라도 그 저술시기가 입적 7~8개월 이전이 될 수 없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입적 전 저술로 평생의 주장을 뒤집기는 힘들다. 진각해심에 의해 꾸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간화결의론은 같은 유자인 원둔성본론의 내용을 전제로 하지만 그 안의 돈법, 선법이 모두 화두참구에 비해 떨어진다고 설하고 있다. 박 박사는 진각 해심 스님의 스승에 대한 저작 위조는 중국 남종선에서 행해졌던 제자들의 선대 저술 집필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남종선에서 특히 하택선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선대 이름을 따 저술한

경우가 많다”며 “여러 계파들이 정통성을 표방하고 진승계보를 갖추기 위해 계보사서를 저작하였다”고 말했다. 간화선 또한 종래 선법과 다른 선법을 주창하며 그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논평으로 나선 최연식 목포대 교수는 “발표자는 <간화결의론>만이 아닌 <절요사기>의 간화선 부분도 해심에 의한 위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조에 대한 구체적인

<간화결의론>저술, 제자 진각이 위조 중국 남종선 ‘계보사서’ 사례 제시

증거는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지눌 스님 선사상 핵심인 무심선과 간화선의 상호모순성 지적도 안을 들여다보면 모순이 아닌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주제로 진행된 이병욱 고려대 박사의 ‘성철 스님은 왜 보조선을 비판했는가’에서는 성철 스님의 보조 사상 비판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 박사는 “성철은 <선문정묘>에서 보조 지눌의 사상을 ‘화업선’에 속한다고 평가했지만 <중보관>에서는 ‘화업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외선내교(外禪內敎)라고 말했



보조 스님의 간화선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 박건주 박사

다”며 “성철은 보조지눌이 경절문의 경지가 지해(知解)의 해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하지만 성철의 수증론에도 문제가 있다”며 “성철의 보조지눌 사상 비판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성철은 수증론을 옹호하기 위해 청허사산, 대혜종교, 나옹혜근의 사상을 인용하지만 잘못 인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주제에서는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이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라 왕족, 불교를 왕권강화 상징으로”

동국대 HK사업단, 1차 연구성과서 이자랑 교수 주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의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하늘과 신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었다. 바로 왕권이 약화됐을 때 또 다른 하늘의 대리자들이 등장하는 등 하늘과의 특수한 관계가 해체되는 현상이 빚어졌 것이다.

불교가 융성한 신라시대에는 이러한 천강의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의식이 탄생한다. 바로 석가족과의 혈연 의식을 바탕으로 한 진종설이다.

이자랑 HK연구교수는 7월 5일 동국대 영상센터에서 열린 HK연구단(단장 김종욱) 1차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신라왕실의 진종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신라 왕실과 석가족의 혈연 관계를 주장하는 진종설은 하늘(天)에 기원을 둔 천강족(天降族)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며 “하늘의 자손이라는 범위를 보다

특수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석가모니를 하늘로, 해당왕족을 그 혈연으로 삼는 논리가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신라귀족 세력의 논리보다 앞선 왕족만의 논리가 필요했다”며 “진종왕이 아들들을 진류성왕으로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나, 진평왕이 진종설을 주장한 것 모두 불교가 왕권강화에 이용된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고승학 HK연구교수는 신라불교신앙이 보편적인 중생구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기존의 신라불교신앙에 대한 인식에 새 시각을 제공했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를 분석해 “신라 불교신앙이 국가차원의 호국과 개인적인 불보살의 가피 위조였다”며 “용에 대한 신앙과 왕과 귀족이 사후 수호신이 되는 점 등 불교신앙이 무속 세계관의 비효율성을 보완·승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런 불교의 포용력이 삼국 통일 이후 사회 안정을 이끌어 냈음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불교 신앙이 하층민으로 보급되는 선상에서 보면 미륵·관음·아미타 등 다양한 신앙 양태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관계를 유지한 점이 이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신라불교의 흐름은 국가적인 아젠다로 호국과 통일에 대한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연등회 전승을 분석한 이종수 HK연구교수는 조선의 억불승유정책으로 인해 불교세가 약화됐다는 기존인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종수 교수는 “불교가 신라·고려시기 왕실과 귀족 신앙 위주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민중 우선의 신앙으로 자리했다”며 “연등회가 민가 풍속이자 축제로 정착된 점은 이러한 점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8월 ‘글로벌리더의 한국



김종욱 단장이 1차 연구발표에 앞서 연구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성’을 주제로 인문한국사업을 시작한 동국대 HK사업단은 1년차 ‘월경의 고유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도륜의 유식 오종성설(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박인석 HK연구교수) △조선시대 연등회의 존재와 그 문화적 전승(이종수 HK연구교수) △무량수경 신라주석에 보이는 ‘하늘’ 개념의 변용과 업설(김영진 HK연구교수) △제정일치적 천강(天降) 관념의 신라적 변용(이자랑 HK연구교수) △신라시대 불교금석문에 나타난 변체한문의 성격과 그 의미(김기중 HK연구교수)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원력의 의미(고승학 HK연구교수) 등 6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동국대 수행 전문과정 개설

승가수행학, 학인 스님 대상 1년 의무과정, 2학기 첫 수업

동국대 불교대학에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에 관한 과목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한 스님은 7월 5일 “불교대학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전공필수인 ‘승가수행학’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승가수행학은 1년 2학기 과정으로 오는 9월 첫 수업에 들어간다. 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 120여 명은 모두 의무적으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수행에 관심 있는 일반학생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계한 스님은 “학인 스님들에게 수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의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게 됐다”며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를 대거 초청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의 활동과 전망 모색

불교사회연구소, 7월 18일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2차 세미나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의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는 오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활동과 전망’을 주제로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원 교육부장 범인 스님이 ‘조계종 승가교육의 활동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조계종 포교활동의 성과와 전망’을, 이도흥 한양대 교수가 ‘현대 한국사회와 조계종의 미래’를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고영섭 동국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불교중앙박물관 흥선 스님이 각각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국제불교학 교보드리 교수 강좌

7월 10일부터 일반인 대상 영문해설 진행

중앙승가대에서 불교영어를 가르치던 교보드리 교수(국제불교학 교보)가 서울 남산 인문의역학연구소에서 7월 10일부터 일반인을 위한 달라이 라마 강좌를 개설했다.

교보드리 교수는 달라이 라마 저서 <How to See YOURSELF As You Really Are>를 기반으로 수행에서의 질문에 대해 영문해설을 시도한다.

교보드리 교수는 “한역 경전보다 영어 텍스트를 통해 불교를 만나려는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공부할 한 권의 책’이 정해진 교재 풀이 수업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8주에 걸쳐 8주제 질의와 응답을 중심으로 토론 형식을 통해 잘못 인식된 ‘자아’의 개념을 어떻게 제대로 보고 해체할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으면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